

# 오행춤 교육프로그램 개발

오레지나\*

## 목 차

Abstract	IV. 오행춤 교육프로그램의 내용구조
I. 서론	V. 오행춤 교육프로그램 적용사례
II. 오행의 특성	VI. 결론
III. 오행춤 교육의 방향	참고문헌

## Abstract

### The development of the educational program of the Five elements dance(O-haeng Chum)

Oh, Regina·Catholic University of Daegu

This study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Five Elements Dance (O-haeng Chum) through the forms of breath. The specifically developed techniques of breathing can be considered as the foundation of the Five Elements-Dance.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ecosystem, the Eco-dance in which “eco-philosophy” and body harmonize with each other can be developed. The Eco-dance is taught by the principle of the Five Elements (Wood, Fire, Earth, Metal, and Water) forming the cycle of nature.

The Five Elements Dance consists of the five techniques such as “of Wood,” “of Fire,” “of Earth,” “of Metal,” and “of Water” based on the five each different forms of breathing. With this methodology, the education program of the Five Elements Dance explores natural body movement reflecting the harmonies between reason and emotion, values and attitudes, and ecosystem and humanity.

\* 대구가톨릭대학교 부교수

논문투고일: 2014. 10. 20. 심사일: 2014. 11. 21. 게재확정일: 2014. 12. 7.

**key words:** O-haeng, Breathing, O-haeng chum, education program

**주요어:** 오행, 호흡, 오행춤, 교육프로그램

## I . 서론

모든 예술현상을 이해하는 데는 그것을 낳게 한 문화권의 사상이나 철학이 가장 근원이 된다 할 수 있다(오레지나, 2007:91). 이 땅에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생활해 오는 동안 우리는 삶뿐만 아니라 자연과 우주, 그리고 그 속에 존재하는 온갖 사물들의 관계를 파악하는 독특한 관점을 발전시켜 왔으며, 그 관점들은 그 자체가 하나의 문화내용으로서 여러 가지 생활양식과 제도를 형성·발전시키는 밑거름이 되어 왔다(이홍우의 6명, 1988:119). 그 중에 하나가 음양오행사상이다. 음양오행의 원리란 음양과 오행이 결합된 것으로 대자연과 우주의 모든 변화 원리(소재학, 2009:22)이며, 만물의 생사법칙이며, 정신의 생성법칙(한동석, 2001:11)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자연의 현상은 양극 사이의 연속적 진동의 표현이며, 점진적으로 단절 없이 변화한다. 자연 질서는 음과 양 사이의 역동적 평형의 하나이다. 우리 사회는 음(방어적, 통합적, 협동적인 것에 상응)보다는 양(공격적, 확장적, 경쟁적 행위에 상응), 직관적 지혜보다는 자연 이용을 일관적으로 선호하는 편중으로 심각한 문화적 불균형 즉 우리의 생각과 감정, 우리의 가치와 태도, 우리의 사회적 및 정치적 구조의 불균형을 초래하였다(Capra, F. 2009:43~51). 이러한 변화 속에서 현 시대의 무용은 예술로서 뿐만이 아니라 교육적, 문화적, 치유적, 역사적 영역에서 사회와 관계를 맺게 되면서 예술 영역에서와는 또 다른 의미와 기능을 지니게 되었다. 이러한 다양한 기능의 무용이 인식의 영역에서 지식의 축적물이 되기 위해서는 무용의 학문적 연구 대상과 방법이 다양화되고 다각화 되어야 한다(한혜리, 2007:70).

무용의 학문적 연구 대상과 방법이 다양화되고 다각화 되어야 하는 것처럼 무용교육을 위한 프로그램도 다양화되고 다각화되어야 한다. 현재까지 오행과 관련된 연구는 교육적 시각에서의 연구보다는 한국춤의 구조와 춤사위를 분석하는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사회의 변화를 반영한 유용한 문화적 개념으로서 오행을 교육적인 관점에서 구조화하여 프로그램화하는 노력이 시급히 요구된다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오행의 특성을 살펴보고 호흡의 표현양태로 오행을 구분하여 정리함으로써 오행을 춤 교육프로그램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초를 형성하고자 하며 생태사회

속에서 시스템 사고를 기반으로 철학적 원리와 몸, 움직임의 연계하여 이해할 수 있는 에코댄스로서의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09년부터 시행한 다양한 적용 사례들을 참고로 하였다. 이러한 적용사례들은 주관적인 경험에 기반하고 있어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 II . 오행의 특성

자연은 인위적인 형식 이전에 존재하는 질서이며, 음양오행은 그 질서 속으로 들어가는 첫걸음이다. 오행五行의 개념은 질서 속에서 끊임없이 돌아가는 우주 운행의 흐름에 배경을 두고 있으며, 그 자체가 우주의 질서이며 자연을 바라보는 동양의 눈이다. 오행에서 오五는 다섯 가지라는 말이고 행行은 걸음걸이를 말한다. 우주는 다섯 가지의 걸음걸이 즉, 목, 화, 토, 금, 수木, 火, 土, 金, 水를 통해 끊임없이 변화한다(어유행 외, 2001: 31~47).

목木은 ‘뻗어 나가는 기상’을 그 특성으로 하며 물상으로는 ‘나무’에 대입되고 계절로는 ‘봄’에, 하루의 시간으로는 ‘새벽과 아침’에 해당된다. 화火는 ‘분산되는 기상’을 그 특성으로 하며 물상으로는 ‘불’에 대입되고 계절로는 ‘여름’에, 하루의 시간으로는 ‘오전과 한낮’에 해당된다. 토土는 ‘중간, 중앙’을 그 특성으로 하며 물상으로는 ‘흙, 산’에 대입되고 계절로는 ‘늦여름, 환절기’에 해당된다. 금金은 ‘따르고 바뀌고 통제하는 기상’을 그 특성으로 하며 물상으로는 ‘쇠나 돌’에 대입되고 계절로는 ‘가을’에, 하루의 시간으로는 ‘오후’에 해당된다. 수水는 ‘적시고 내려가고 수축하는 기상’을 그 특성으로 하며 물상으로는 ‘물’에 대입되고 계절로는 ‘겨울’에, 하루의 시간으로는 ‘밤’에 해당된다(소재학, 2009: 164).

몸은 크게 나누면 근육과 피, 살과 피부 그리고 뼈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들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며 몸을 이루고 있는데 이것 또한 오행에 속한다. 목의 간과 담은 근육을 주관하며 화의 심장·심포와 소장·삼초는 몸의 피를 담당하고 있고, 토인 비·위는 살을, 폐와 대장은 피부를 그리고 신장과 방광은 뼈와 골수를 다스린다. 이처럼 음양오행의 원리는 우리 몸의 원리(박광수, 1993: 140~142)이기도 한 것이다.

공간적으로 보면 목木은 직선과 곡선으로 뻗어나가려는 특성이 있으므로 선線과 같다. 화火는 목木이 직선과 곡선으로 밀고 나가지 못할 때 그 힘이 사방으로 흩어져 버리는 모습인 면面과 같고, 금金은 흩어진 화火를 수렴시켜 성숙해진 입체의 모습으로 나타나

는 구球와 같다. 수水는 하나의 수축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점點과 같고, 토土는 목화금수의 고리를 이어주어 원을 이루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목화금수가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자꾸 변화하려는 것은 토土가 가지고 있는 화化의 특징 때문이다(허순선, 2005: 22).

목木은 부드럽고 뻗어나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오행의 기운 중 힘이 가장 강하다. 화火는 뜨겁게 펼쳐져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어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내면은 텅 빈 상태의 허기라 할 수 있다. 토土는 목, 화, 금, 수의 바탕이 되며 음양의 승부 작용에 편중되지 않고 중립을 유지한다. 그러므로 화기도 수기도 없는 상태이다. 여름의 화기는 중재 작용을 하는 토土를 만나게 되면 더 이상의 팽창을 멈추고 가을의 수렴을 위한 준비를 한다. 양이 약해지고 음이 강해져서 차고 단단해지는 것이 금金기이며, 양이 계속 힘을 잃어 음의 본성인 수축성이 최대한 발휘되는 상태가 수水인 것이다. 이러한 오행의 특성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오행의 특성

오행	목木	화火	토土	금金	수水
식물	새순, 줄기	잎	꽃	열매	뿌리
계절	봄	여름	늦여름	가을	겨울
장기	간장	심장	비장	폐	신장
신체	근육	피	살	피부	뼈와 골수
성격	생(生:탄생)	장(長:성장)	화(化:변화)	수(收:수렴)	장(藏:저장)
운동성	↑	↘ ↗	↑ ← → ↓	↓ → ← ↑	•
공간	선線	면面		구球	점點

### III. 오행춤 교육의 방향

#### 1. 호흡

오행이란 개념은 태극이라고 불리는 통일체가 태역太易, 태초太初, 태시太始, 태소太素의 네 단계를 거쳐서 태극으로 발전된 것이다. 이것은 다시 음과 양이라는 두 가지 기운

이 갈라지게 되는데 그 음양은 또다시 각각 분합작용을 일으킴으로써 다섯 개의 새로운 성질이 발생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오행인 것이다. 지구 위에 있는 삼라만상은 그것들의 성성과 질질을 일일이 따져볼 때 어느 하나 할 것 없이 오행의 성질이 아닌 것은 없다. 그러므로 오행이라는 것은 우주현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섯 가지의 질적 양태로 구분한 자연법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한동석, 2001:58).

이러한 다섯 가지 목, 화, 토, 금, 수(木, 火, 土, 金, 水)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목木은 뺏어나가는 기운, 화火는 뜨겁게 펼쳐지는 기운, 토土는 중재하는 기운, 금金은 수렴하는 기운, 수水는 저장하는 기운을 갖고 있다. 이러한 기운들을 호흡의 표현적 양태를 고려하여 구분하면 목木은 밀기 호흡, 화火는 뿌리기 호흡, 토土는 풀기 호흡, 금金은 맺는 호흡, 수水는 담아 머무는 호흡 등이 된다. 오행춤 교육프로그램은 이러한 다섯 가지 호흡표현의 질적 양태를 구분하여 적용하였다.

따라서 목춤, 화춤, 토춤, 금춤, 수춤으로 호흡의 표현양태에 기초하여 분리 구성하였으며, 특정한 순서에 기초하여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이 오행의 원리를 이해하고 자유로운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목춤은 밀기의 호흡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강한 에너지를 표출하는 춤사위로, 화춤은 뿌리는 호흡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기운이 사방으로 펼쳐지는 춤사위로, 토춤은 푸는 호흡을 통해 기운을 밖에서 다시 안으로 전환시키는 번짐과 중재의 춤사위로, 금춤은 수렴을 통해 기운이 한 점으로 모이는 응축의 춤사위로, 수춤은 담아 머무는 호흡의 춤사위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춤사위들은 호흡을 통한 표현 양태에 의해 구분이 되는 것들이므로 순서와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춤 또는 춤에 대해 문외한인 경우에도 오행의 원리와 호흡의 표현 양태만 이해하면 바로 오행춤을 출 수 있기 때문에 한국전통문화의 구성원리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오행의 원리를 이해하고 한국의 춤사위를 자신의 몸짓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

표 2. 오행의 원리에 기초한 호흡

오행	목木	화火	토土	금金	수水
호흡	밀기	뿌리기	풀기, 번지기	응축하기, 맺기	담기, 머물기

## 2. 생태개념

생태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예술활동으로서의 에코댄스는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고 생명을 살려내는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위한 움직임이며, 자연의 일부분으로서의 신체를 매개로 나, 타인, 자연과의 관계를 새롭게 형성해가는 예술(오레지나, 2012:40)이다.

오행에 대한 이해는 이러한 생태의식과 맥락을 같이 한다. 에코댄스는 생태와 무용의 핵심적인 개념을 기초로 생태적 사고, 생태적 신체, 생태적 움직임으로 구조화(오레지나, 2011: 43)되어 있는데 이러한 에코댄스의 구조에 입각하여 오행춤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생태적인 사고는 자연을 인위적인 형식 이전에 존재하는 질서로 이해하고 사회적, 정치적, 환경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에 있어 보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기본으로 한다. 생태적인 신체는 자연의 이치에 입각하여 인간의 몸을 자연의 일부분으로 생각하는 생태적 몸관(觀)에 기초하며, 생태적인 움직임은 생태적 사고와 생태적 몸관(觀)에 기초한 신체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구현되는 개체의 독특성과 개체간의 유기적인 관계의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적 소통의 다양한 상징을 의미한다(오레지나, 2011: 50).

그렇기 때문에 오행춤 교육프로그램은 생태적 사고, 생태적 신체, 생태적 움직임을 고려하여 생각과 감정, 가치와 태도, 몸과 움직임의 상호 연관성을 통합된 전체로 이해할 수 있도록 자신의 생각과 몸에 기초하여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찾도록 개발하였다.

## IV. 오행춤 교육프로그램의 내용구조

### 1. 생태적 사고

오행에 대한 이해는 자연과 인간에 대한 이해라고 할 수 있다. 동양은 인간과 자연, 정신과 육체를 구별하는 이원론적인 사유를 거부하는 사상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전통은 자연의 생장원리와 질서, 관계성을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음양오행설은 만물의 본체인 자연을 태극으로 보고 자연의 순환을 음과 양의 순환(어윤형, 1994:299)으로, 오행(木, 火, 土, 金, 水)은 바로 그 음양 순환의 구체적인 운동(박광수, 1993:59)으로 자연의 질서와 관계를 설명한다(오레지나, 2011:43~44).

이러한 질서와 관계는 상생과 상극의 원리로 설명된다. 상생이란 평화적이고 합법적이

며 전진적이고 순리적이며 서로 생생하여 주는 관계로서 목생화木生火, 화생토火生土, 토생금土生金, 금생수金生水, 수생목水生木의 다섯 가지가 이에 해당된다. 여기에서 생생한다는 의미는 ‘생기게 한다’, ‘도와준다’, ‘지지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상극은 화극금火剋金, 금극목金剋木, 목극토木剋土, 토극수土剋水, 수극화水剋火로 극(剋)하는 것은 ‘이긴다’, ‘지배한다’, ‘통제한다’, ‘방해한다’는 뜻으로 화는 금을 지배하고 금은 목을 다스리며 목은 토를 토는 수를 수는 화를 지배한다는 작용이다(김지희, 2004:35~37). 상생과 상극은 질서와 관계에 대한 자연법칙이라고 할 수 있다. 곧 오행을 통해 관계의 법칙을 상생과 상극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모든 자연적 시스템은 부분들 사이의 상호 작용과 상호 의존으로부터 독특한 구조가 생기는 전체이다. 시스템의 활동은 많은 구성요소 간에 동시적이며 서로 의존하는 상호 작용의 과정을 내포하는 역동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Capra, F. 2009:337).

따라서 오행을 춤으로 이해하는 것은 시스템적 사고를 통해 비선형적이며 통합적이고 질적이며 협력적인 가치로의 전환을 의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

## 2. 생태적 신체

생태적 몸관(觀)에 기초하여 몸의 질서를 회복할 때 신체는 본연의 생태성을 회복하게 된다. 몸 질서의 회복은 양생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양생이란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살도록 몸 관리를 잘하는 것을 말한다(오레지나, 2012:44).

오행춤 교육프로그램은 건강에 진일보한 양생의 개념에 기초한다. 몸을 소우주로 여겼던 전통적인 몸관에 뿌리를 두고 자연의 이치 속에서 몸의 이치를 이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오행 각각의 기운이 몸에 연동되어 있으며 호흡에 따른 다섯 가지 움직임들이 몸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의식하며 춤을 추도록 한다. 몸의 상태에 따라 오행 중 부족한 기운을 보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도 있다.

음양의 확장이 오행이므로 온 몸 관절의 굴신屈伸을 기본으로 하여 오행의 춤사위를 구체화시킬 수 있다. 또한 목, 화, 토, 금, 수木, 火, 土, 金, 水 개인적인 성격, 성향에 맞추어 특정 기운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분리하여 구성할 수 있으며 상생과 상극의 관계를 고려하여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3. 오행에 기초한 몸

오행	목木	화火	토土	금金	수水
오장	간장	심장	비장	폐	신장
얼굴	눈	혀	입	코	귀
체액	눈물	땀	침 흘림	콧물	침 뱀음
신체	근육	피	살	피부	뼈와 골수
오염(五榮)	손톱	얼굴색	입술	몸털	머리털

(박광수, 1993:142~149)

### 3. 생태적 움직임

생태적 움직임은 생태적 사고와 생태적 몸관(觀)에 기초한 몸을 통해 발현될 수 있다. 정신과 육체를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는 동양사상의 전통은 우리로 하여금 생태적 사고가 곧 생태적 움직임과 밀접하게 연관되며, 우리 몸에 질서가 있듯이 움직임에도 질서가 있음을 이해하게 한다(오레지나, 2011:48).

그렇기 때문에 호흡의 표현적인 양태에 기초하여 목, 화, 토, 금, 수木, 火, 土, 金, 水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각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움직임이 나오므로 즉흥성과 탈형식성의 특징을 갖는다. 예술성을 지닌 즉흥은 창작의 발현이고, 표현에서의 본질을 말한다. 따라서 무용에 있어서 즉흥improvisation은 무용의 체계에서 떠난 찰나적, 여흥적인 것이 아니라 예술로 승화시키는 개인감정의 첫 출발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김화숙, 2007:3).

이러한 움직임의 핵심 호흡과 예시는 아래와 같다.

- 목춤(밀기호흡으로 춤추기)
  - 밀기호흡으로 손을 위로 들어 올린다.
  - 땅을 뚫고 뻗어나가는 뿌리를 상상하며 양 손을 번갈아 밀어 내린다.
- 화춤(분열, 분산, 상승의 기운을 살려 춤추기)
  - 뿌리는 호흡으로 양 손을 펼친다.
  - 불꽃의 이미지를 상상하며 다양한 형태로 움직인다.
- 토춤(변화, 중화, 숙성, 성숙의 흡수하고 번지는 호흡으로 춤추기)
  - 호흡을 풀어 바닥에 엎드린다.



- 물을 흡수하는 흙의 이미지를 상상하며 윗몸사위를 한다.
- 금춤(수렴, 견고, 하강의 호흡으로 춤추기)
  - 응축의 호흡으로 바닥을 친다.
  - 물건을 잡듯이 움켜진다.
- 수춤(저장, 근본, 영원의 이미지를 가지고 춤추기)
  - 담아 머무는 호흡으로 합장한다.
  - 씨앗의 이미지를 가지고 다양하게 움직인다.
- 상생원리 이해하고 춤추기
  - 목 → 화 → 토 → 금 → 수의 순서로 진행하며 춤추기

호흡에 집중하여 몰입함으로써 호흡의 변화에 따라 춤의 표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인식하게 하고 이러한 과정을 함께 나눔으로써 자신을 탐색하고 오행의 특성을 고려한 움직임을 디자인 할 수 있도록 한다.

## V. 오행춤 교육프로그램 적용사례

### 1. 한국무용교육학회 지도자 강습회

2009년 6월 무용지도자 30명을 대상으로 음양오행춤을 천지의 창조부터 만물의 생성과 변화를 표현하는 모듬별 공연형식으로 적용하였다. 한국전통무용의 호흡을 오행의 원리로 이해하고 움직임으로 표출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 프로그램 종료 후 참가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한국무용을 이렇게 쉽게 배울 수 있다는 것이 놀랍다’, ‘한국무용의 호흡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오행의 호흡변화를 통해 내 안에 깊이 몰입할 수 있었다.’, ‘신명난 체험이었다.’ 등의 의견들이 나왔다.

음양오행의 원리를 적용한 음양오행춤은 한국춤을 이해하고 자신만의 움직임을 개발하고 신명을 체험하는 데 매우 큰 역할을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오레지나, 2010:33).

## 2. 예술강사 지원사업 고등학교 무용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예술강사 지원사업에서 무용분야 예술강사가 파견된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오행춤을 적용하였다.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던 강사들에 의해 참여하였던 학생들의 소감을 들을 수 있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아무런 거부감 없이 춤을 출 수 있어서 좋았다’, ‘한국춤을 쉽게 체험할 수 있어서 좋았다.’,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다.’, ‘어려운 오행사상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았다.’ ‘나에게서 이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이 놀랍다’ 등의 의견이 나왔다.

한국춤을 작품순서가 아닌 원리와 정신의 이해를 통해 더 쉬운 방법으로 깊게 이해시킬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입시부담 속에서 춤을 통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다는 것과 움직임을 통해 사고가 유연해지고 몸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3. 한국무용교육원 커뮤니티댄스 지도자 양성과정 연수

2011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 한국무용교육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커뮤니티댄스 지도자 양성과정 연수에서 에코댄스 과목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오행춤을 적용하고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던 연수자들은 춤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신선하며, 생태적인 시각 속에서 신체와 움직임을 이해할 수 있어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생태적인 시각에서 오행의 원리를 기반으로 춤을 풀어내는 과정은 춤을 이해하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도 좋은 안내자 역할을 하였다.

# VI. 결론

한국의 철학과 문화적 전통 속에서 생태의식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우리나라 생태무용의 기원은 이미 생태사회였던 전통사회 속에서 형성된 한국무용에서 찾아볼 수 있다. 생태무용은 기氣的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움직임의 표현인 ‘생춤’의 형태로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고(김현자, 1993), 생태무용Ecodance에 대한 용어는 2010년부터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오레지나, 2010), 생태적 관점(이승아, 2001, 유미희, 2002; 오레지나, 2010, 2011a, 2011b, 2012; 박지영, 2010; 이유진, 2010; 정은주, 2011; 임희선, 2012; 김옥희, 2012)에서 무용을 다룬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이유진, 2013:62). 이러한 연구는 생

태사회에서의 사회적 요청에 기반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요청에 기초하여 생태문화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생태적 실천방법으로서 자연의 생장과 순환을 설명하는 오행木, 火, 土, 金, 水의 원리를 기초로 오행춤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오행춤 교육프로그램은 목춤, 화춤, 토춤, 금춤, 수춤으로 호흡의 표현양태에 기초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이 오행의 원리를 이해하고 자유로운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생태적 사고, 생태적 신체, 생태적 움직임을 고려하여 생각과 감정, 가치와 태도, 몸과 움직임의 상호 연관성을 통합된 전체로 이해 할 수 있도록 자신의 생각과 몸에 기초하여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찾도록 개발하였다.

본 연구는 태사회 속에서 시스템 사고를 기반으로 철학적 원리와 몸, 움직임을 연계하여 비선형적이며 통합적이고 질적이며 협력적인 가치로의 전환을 의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

## 참고문헌

- 김지희(2004), **음양오행에 따른 전통 춤사위 지도체계**, 도서출판 흥경.
- 김화숙(2007), “창의성과 즉흥무용 교육의 관계 탐색”,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제18집 2호**, 1-18.
- 오레지나(2007), “한국춤의 미에 관한 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제18집 2호**, 87-98.
- \_\_\_\_\_ (2011), “에코댄스의 구조 및 교육적 의미”,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제22집 2호**, 39-51.
- \_\_\_\_\_ (2012), “에코댄스의 구성 원리 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제23집 2호**, 37-50.
- 이유진(2013), “한국무용 패러다임의 변화양상 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제24집 2호**, 47-66.
- 이홍우, 이계학, 박재문, 유한구, 황인창, 김안중, 장성모(1988), **한국적 사고의 원형**, 한국전신문화연구원.
- 소재학(2009), **음양오행의 원리이해**, 도서출판 하원정.
- 어운형, 전창선(2001), **오행은 뭘까?**, 도서출판 세기.
- 한동석(2001), **우주 변화의 원리**, 대원출판.
- 한혜리(2007), “무용읽기와 무용매체의 관계 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제18집 2호**, 69-86.
- 허순선(2005), **한국의 춤사위와 무보틀**, 형설출판사
- Capra, F.(1982), *The turning point*, 구윤서, 이성범(역, 2009), **새로운 과학과 문명의 전환**, 범양사.